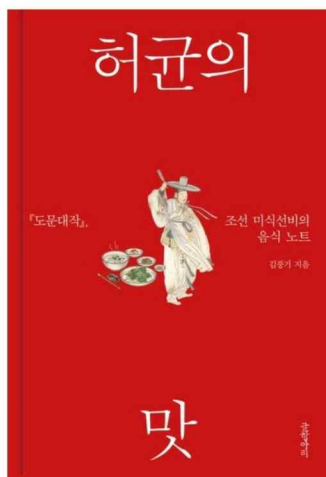


2026.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8월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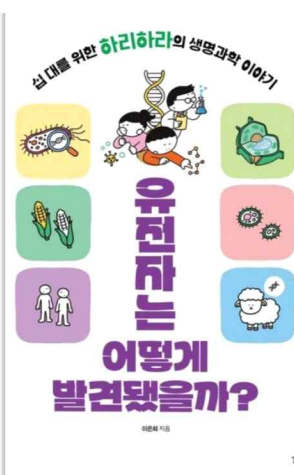
초·중·고
교양리더



허균의 맛

김봉기 지음

고
교양리더



유전자는 어떻게 발견됐을까?

이은희 지음

고
교양리더



1941, 우리의 비밀 과외

이민항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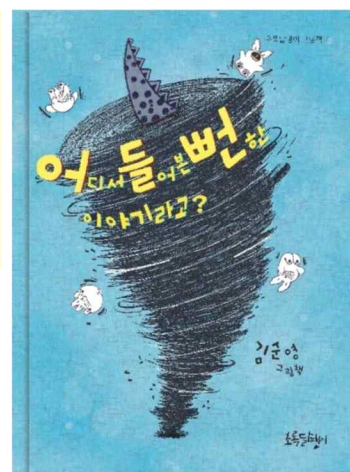
초
등고



리플레이

이윤정 글, 박재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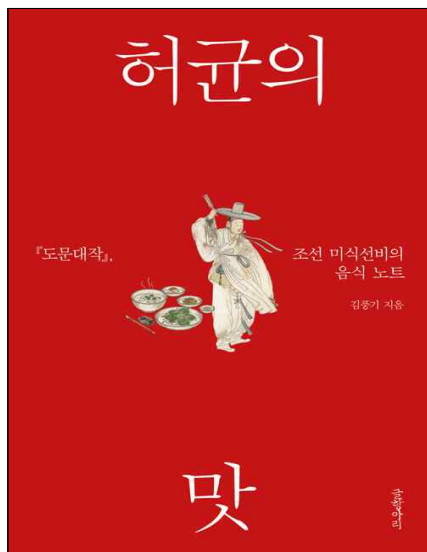
초
등저



어디서 들어본
뻔한 이야기라고?

김순영 지음

이 추천도서 요약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사서들로 구성된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이달의 책〉 TF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허균의 맛

김봉기 지음

글항아리 / 2026 / 480쪽

음식의 기억은 허균에게 아름다웠던 시절을 그려보면서
현실의 곤고함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으리라.

책 속 구절, 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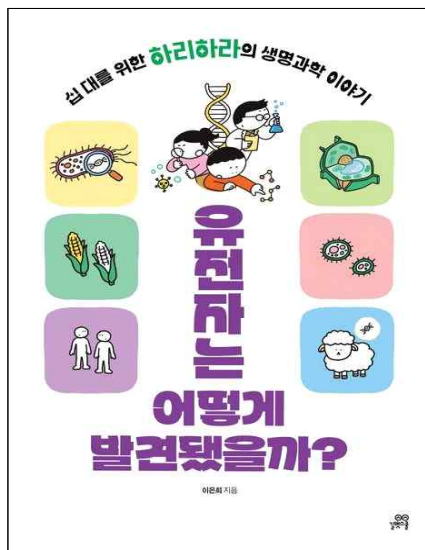
허기진 마음을 달래는 맛의 기억, 기억의 맛

조선의 뛰어난 문장가이자 사상가이며, 당대 신분제도 문제를 지적한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미식가로도 유명하다. 명문가 출신으로 ‘맛난 고기든 아름다운 꽃부리든 씹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서술한 그가 조선 최초의 음식 평론서라 할 수 있는 『도문대작』을 집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임진왜란과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파란만장한 운명을 견디게 한 것은 음식에 담긴 기억이다.

바닷가에 흔한 방풍 싹을 넣어 끓인 향기로운 방풍죽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 유배 생활 중 가장 먼저 떠올린 음식이다. 오랫동안 허균을 연구해 온 저자는 피란길에서 아내와 어린 자식을 잃고, 어렵게 도착한 강릉 외가에서 맛본 방풍죽 한 그릇에 담긴 위로를 읽어내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한다.

조선의 땅과 바다에서 난 갖가지 식재료와 계절 음식을 다룬 짧은 글이 당대의 다른 기록과 자료, 현대의 해석에 저자의 개인적 경험이 보태져 새롭게 태어났다. 묘사를 통해 재첩이나 민들조개로 조심스레 추측만 해볼 수 있는 제곡과 요즘은 거의 먹지 않는 대나무 열매인 죽실 요리도 신기하다. 예전에는 이태원에서 나는 여뀌를 고급 식재료로 여겼지만, 지금은 잡초로 보는 변화에서 상전벽해를 실감할 수 있다.

달콤하고 쫄쫄한 약밥은 신라시대 구전설화에서부터 등장해 조선시대에는 중국에까지 퍼져나가 ‘고려반’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오늘날 한류의 한 축이 되는 K-푸드의 원조라 할 만하다. 저자와 함께 시대를 가로지르는 음식문화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경험은 제법 흥미진진하다. 지나온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유전자는 어떻게 발견됐을까?

이은희 지음

길벗스쿨 / 2026 / 153쪽

이 실험으로 우리는 유전자들이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지.

책 속 구절, 84쪽

콩 심은 데 콩 나는 이유, 어떻게 밝혀졌을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자식은 부모의 생김새를 닮는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고유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현상을 설명하고 활용하는 데 약 1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 ‘유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여러 과학자가 걸어온 발자취가 한 권의 책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유전학의 역사는 농경사회와 함께 시작한다. 더 크고 튼튼한 작물을 골라 심는 경험으로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과학자들은 ‘유전 물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향해 차츰 나아간다. 멘델은 완두콩 실험을 통해 유전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유전 물질이 고체임을 확인한다. 여러 과학자를 거친 세포 연구는 유전 물질이 세포핵 속에 존재한다는 발견으로 이어진다.

세포핵을 염색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형질이 염색체를 통해 전달된다는 가설이 힘을 얻는다. 생명의 설계도를 이루는 기본 단위에 ‘유전자’라는 이름이 붙고, DNA를 변화시키면 생물의 특성도 달라진다는 원리를 알게 된다. 과학자들은 숏한 연구를 통해 DNA가 생명의 모든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100% 유전 물질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확실하게 증명한다.

과거의 연구는 미래의 씨앗이 되는 법. 마지막 장에서는 유전정보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유전자 편집이나 치료제 개발과 같은 최신 기술의 사례로써 살펴본다. 생명의 원리를 밝혀온 연구가 현재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기술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대중 과학서를 많이 저술해 온 작가의 쉬운 비유와 스토리텔링으로 유전학의 결정적 순간을 흥미롭게 따라가며 생명과학의 세계에 한층 가까워져 보는 건 어떨까?



1941, 우리의 비밀 과외

이민항 지음

다른 / 2026 / 163쪽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것은
비겁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니까.

책 속 구절, 151쪽

시는 우리의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다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이 극심해진 1941년 경성. 총독부는 모든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다. 학교에서는 기요하라 준코로 불리는 소녀 을순은 인쇄소를 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 여태 창씨개명을 피해왔지만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을순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유일한 선물인 자신의 이름으로 더 이상 불릴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롭기만 하다.

어느 날 인쇄소에 전문학교 학생 동주가 졸업 기념으로 시집을 발간하기 위해 찾아온다. 아버지는 모자란 인쇄비를 깎아주는 대가로 을순의 일본어 과외를 부탁한다. 한편 일본 말은 서툴지만 일본 고전 시 하이쿠 짓기에 재능을 보인 을순은 담임 선생님의 제안으로 교내 문화 행사인 동백제 백일장 부문에 참가한다. 우승은 못 해도 자신을 깔보는 반장만큼은 이기고 싶어 동주에게 비밀 과외를 청한다.

시를 짓는 즐거움에 눈떠가는 을순과 달리 동주는 일본말에 자신의 정서를 담아야 하는 현실 앞에 부끄러움과 무력감을 느낀다. 전쟁으로 일제의 감시는 더 심해지고 조선 말로 된 시집 출간은 무산된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 시작된 동백제, 백일장 공동 수상자인 을순의 낭독으로 행사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된다. 학교에서도 망친 을순은 동주의 원고를 돌려주러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의 아픈 역사와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힘겹게 지켜낸 우리말의 가치를 절절하게 전한다. 일본어로 시를 써야 하는 현실과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또한 줄거리의 흐름과 연결되는 윤동주 시인의 시 9편은 작품에 감동을 더한다.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는 8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말과 우리 이름의 소중함을 새삼스레 깨닫게 될 것이다.



리플레이

이윤정 글, 박재인 그림
문학동네 / 2026 / 147쪽

무엇보다도, 나에게 외로울 때마다
리플레이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

책 속 구절, 1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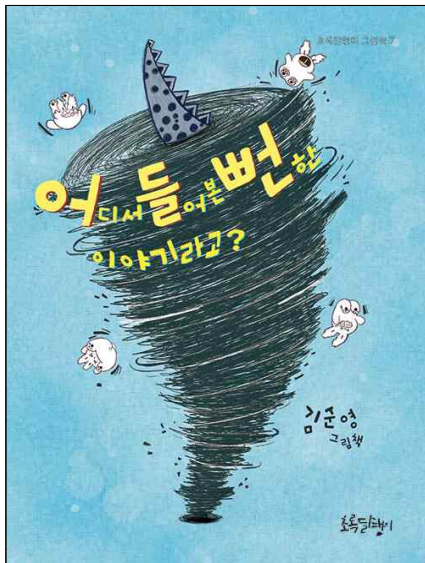
아픔 다시 보기를 닫고 행복 재도전

해람이는 시합 중 야구공에 얼굴을 맞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야구를 그만둔다. 희영이는 바빠서 좀처럼 얼굴을 볼 시간이 없는 아빠와 단둘이 산다. 단짝 제나마저 아이돌 연습생이 되려고 서울로 떠나자 모든 게 재미없어져 버렸다. 학교에 지각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던 중 상담 선생님의 눈에 띄어 매주 상담을 받게 된다.

선생님은 희영이 좋아하는 아이돌 앨범을 선물로 걸고 한 달간 산책하기를 권한다. 희영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선 산책길에서 해람이와 우연히 마주친다. 해람이가 떨어뜨린 이어폰 케이스를 던져준 일을 계기로 둘은 캐치볼 연습을 시작한다. 야구를 포기했던 해람이지만 희영이가 던진 공은 무섭지 않았다. 던지고 싶은 곳을 향해 계속 팔을 뻗고 달리기도 하는 동안 서로를 응원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

용기를 내어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간 날 해람이는 자기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팀 재입단 훈련을 위해 캐치볼 연습을 중단하기로 한다. 게다가 서울에서 돌아오고 싶었던 제나가 오디션 합격 소식을 전해오자 희영이는 다시 홀로 남겨진 듯한 마음에 침울해진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친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

해람이는 예전의 멋진 타자로 단번에 되돌아갔을까? 희영이는 여전히 외로움에 슬퍼하고 있을까? 반복되는 트라우마와 무력감, 번아웃에 힘겨워하던 아이들은 아픔에만 머무는 대신 다시 도전한다. “쫄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주인공의 입을 빌려 자신의 노력과 서로에 대한 지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삶의 어떤 순간을 계속 리플레이할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어디서 들어본 뻔한 이야기라고?

김순영 지음

초록달팽이 / 2026 / 44쪽

내가 책에서 봤는데.

슬픈 때 잘해주면 감동한대.

악어가 감동하면 우리를 도울지도 몰라.

책 속 구절, 28쪽

이빨 빠진 악어와 토끼들의 동상이몽

어느 날 회오리바람에 휩쓸린 악어가 토끼 마을에 떨어진다.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악어와 귀여운 토끼들. 누가 봐도 가까워질 것 같지 않은 두 동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한쪽은 잡아먹으려 하고, 다른 쪽은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포식자와 먹잇감이라는 익숙한 관계를 예상 밖의 방향으로 풀어낸다.

사실 악어는 눈을 뜨자마자 상대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낙하 충격으로 인해 이빨이 모두 빠져버려 실패한다. 새 이빨이 날 때까지 기다린 뒤 몽땅 해치우려는 검은 속내를 숨긴 채, 녀석들의 살이 빠질까 봐 슬쩍 도와주기까지 한다. 통통해야 맛있으니까. 토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악어에게 자신들이 먹을 채소를 가져다주고 다친 꼬리도 치료해 준다. 이들의 친절 공세에 악어의 마음도 가랑비에 옷 젖듯 물들어 간다.

그때 마을이 홍수에 잠겨 토끼들이 다 떠내려갈 위기에 처한다. 물살을 헤치며 나타난 악어는 커다란 입을 찢어 벌려 모두를 구해낸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악어가 마음씨 좋은 친구를 만나 착해진다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면? 토끼들 역시 이빨 빠진 악어의 힘을 빌려 마을을 지키려는 나름의 계획을 품고 있었다. 과연 그들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만화처럼 칸칸이 나뉜 그림은 이야기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따라가도록 이끈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속마음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친구가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작고 겁많은 토끼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건넌 친절은 악함이나 비굴함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된다.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따뜻하면서도 익살스럽게 전하는 책이다.